

## 도서관은 도대체 책 구입을 어떻게 할까?

글\_이우정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관장)

공공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간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도서관에는 찾는 책이 없다'고 한다. 도서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연간 3천만 원부터 1~2억 대가 넘는 도서구입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찾는 책이 없다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는가? 도서관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공공도서관의 책 구입은 크게 정기구입과 희망도서구입으로 나눈다. 정기구입은 도서관 사서가 신간도서 중에서 조사를 통해 구입하는 것을 말하고, 희망도서는 도서관에 없는 책 중에서 이용객이 신청하면 검토해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구입 예산으로 보면 정기구입과 희망도서구입은 80대 20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져 신간도서를 중심으로 구입하는 정기구입이 그 도서관의 장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용객이 신문에 소개된 신간서평을 보고 공공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을 때 절대로! 그 책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는 시기와 절차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즉, 정기구입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연간 도서구입을 분기별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 십종씩 쏟아지는 신간도서를 한꺼번에 3개월치를 모아서 구입한다는 얘기다. 물론 도서관 나름의 사정은 있다. 도서구입 예산이 적은 곳일수록 적절히 안배하려다 보니 분기별로 집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소 기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균등하게(?) 구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편의에 가깝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용객의 입장에서 보면 정확히 말해 3개월 후이나 들어올 책을 지금 도서관에서 찾는 꼴이다. 분기별 도서구입제도는 책 읽는 국민들이 도서관을 불신하게 되고, 도서관에 아예 오지 않도록 하는 제1의 적인만큼 당장이라도 바꾸어야 한다!

한편, 분기별 도서구입 말고도 국민들의 책 읽을 권리를 방해하고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전자입찰과 정가제 적용제의

조항이다. 도서관 자료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용객 손에 전달되게 되는데 가령, 사서가 3개월간 출간된 책 중에서 조사한 3,000권을 내부결재와 자료선정위원회를 거쳐 전자입찰(G2b)에 올려서 처리하게 된다. 책을 전자입찰로 구매한다는 말은 여타의 물품이나 장비와 다를 바 없이 최저가로 구입을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정가 1만 원하는 책을 8,500원 제시한 업체보다 6,800원 제시한 도서유통업체에 낙찰되는데 이렇게 하는 근거는 도서정가제의 예외적용 때문이다.

사실 도서정가제는 한 나라의 지식정보산업의 근간을 유지하고 출판문화 진흥을 담보하는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때 도서관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지난 6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도서정가제 조항에는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국민들에게는 신간도서의 경우, 10%로 할인을 제한하면서 도서관은 20~30% 또는 그 이상으로도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서관은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출판문화 진흥을 위해 도서구입 예산을 더 늘려야 할 책임을 도서정가제를 빌미로 민간에 떠 넘겨 출혈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도서유통업체가 계속되는 출혈경쟁으로 버티지 못해 도산하게 된다면 도서관은 좋은 책을 공급받기 어렵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책 공급의 난맥상은 생산자인 출판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출판사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구비해야 하는 도서관은 또다시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도서관에 가장 늦게 책이 전달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가장 먼저 도서관에 공급해서 국민들이 도서관을 찾아오도록 하자. 그것이 출판문화 산업 진흥에도 기여하는 일이다! **한우정**



### 찰칵, 도서관 풍경

방학을 맞아 어린이도서관 한쪽 열람실에서 그림자극이 공연되었다. 그림책 《회색늑대의 꿈》을 어린이도서관 책 읽어주는 동아리에서 직접 각색, 공연했다. 책을 읽는 열람실이 공연장으로 바뀐 모습은 새로웠다. 공연을 지켜보는 아이들 모습이 무척 진지하고 즐거워 보인다. 도서관에서 책읽기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도서관을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 공연을 하는 도서관, 놀이가 있는 도서관을 통해 친숙하게 도서관을 이용한다면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이 되지 않을까?(7월 셋째 주 토요일 부천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 글·사진\_변자영 사서)

## 도서관 소식

### 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개소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권경상)이 도서관정책 관련 '도서관연구소' (소장 이귀원)를 개소했다. 연구소는 도서관법 제19조를 기반으로 소장을 포함해 6명으로 출범했다. 앞으로 고전서적 연구인력 13명과 자료보존 기술연구 인력 7명을 추가 영입해 총 24명 3개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3일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도서관연구소(소장 이귀원) 현판식과 개소식을 가진 도서관 연구소는 선진형 도서관 조사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현판식

지난 5월 22일 출범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7월 13일 현판식을 가졌다. 4월 발효된 도서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국가시책 수립과 도서관서비스 지침 및 기준제정, 장애인 이용 자료 제작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